

전죽표(교육)·손병락(지역사회개발)·전재연(체육)

제6회 포천시 문화상 수상자 확정 10월10일 시상식



전죽표 (교육부문) 손병락 (지역사회개발부문) 전재연 (체육부문)

제6회 포천시문화상 수상자로 교육 부문에 전죽표 이곡초등학교 교장, 지역사회개발 부문에 손병락 청소년지도위원, 체육 부문에 전재연 배드민턴 국가대표선수를 각

각 확정했다. 포천시는 9월26일 문화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5명의 수상후보자중에서 3명을 수상자로 결정했다. 교육 부문에 수상자 전죽표(57·

사진) 이곡초등학교 교장은 자연친화적 학교 공원화 모델학교 및 수생식물 관찰원 조성 등을 통한 교실수업개선, 자매부대 방문을 통한 병영체험활동, 지역내 봉사활동을 통한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해 나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교내 창의적인 학습결과물 발표대회 및 자기주도적 학습력 발표대회, 교내 과학탐구경진대회 등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 및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신장시켜 2007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지역사회개발부문 수상자 손병락(52·사진) 청소년지도위원장은

은 시설문화봉사, 장애우 체육봉사 등 지역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 실천에 기여한 점과 청소년지도위원, 영북면 의용소방대 부단장을 역임하면서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포천시 시민구조대장으로 수난사고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헌신해온 점 등도 이번 수상자 선정에서 후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부문 수상자 전재연(26·사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는 포천출신(포천초, 포천여중, 포천고)으로 각종 전국대회를 석권, 학교와 지역의 명예를 드높였으며, 2007싱가폴 세르타이트배드민턴선수

목회 단상



다이아몬드의 가치

김형성 내촌교회목사

금강석이라고도 하는 다이아몬드는 순수하게 탄소로만 구성된 광물이다. 다이아몬드는 현재까지 알려진 자연산 물질 가운데 경도가 가장 높으며, 가장 대중적인 보석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다이아몬드를 능가하는 경도와 광채를 가진 보석은 아직까지는 없다. 다이아몬드는 매우 높은 굴절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광채를 띤다. 다이아몬드는 잘 연마될수록 훨씬 더 많은 값어치가 나가기 마련이다. 흔히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에는 4C가 있다고 한다.

첫째는 투명도(Clarity)이다. 다이아몬드는 투명도에 따라 투명, 반투명, 불투명한 것이 있다. 다이아몬드는 맑은 정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투명할수록 더 값비싼 보석이 되는 것이다. 둘째는 무게(Carat)이다. 다이아몬드의 중량은 캐럿(1캐럿은 200mg)과 포인트(1포인트는 0.01캐럿)으로 표시한다. 무게가 가벼울수록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떨어진다. 셋째는 색깔(Color)이다. 다이아몬드는 무색에서 흑색까지 다양하다. 무색 또는 옅은 청색의 것

이 가장 값비싸지만 이런 것은 매우 드물고, 대부분은 노란색을 띤다. 가치 있는 보석일수록 그 빛이 신비하다.

넷째는 모양과 절(Cut)이다. 보석을 어떻게 깎느냐에 따라 각도와 모양이 달라지고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 우리 인간도 여기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맑은가? 얼마나 우리의 삶이 무거운가? 얼마나 우리의 생활이 아름다운 색을 내며 빛을 발하는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사는가?

그러나 인간은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Christ)이다. 우리가 그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을 향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예수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삶이 당신의 소유임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6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문의) 031-532-2489



고령화 사회를 준비한다

빈곤 어르신 실태 및 노후 대책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적 실태를 살펴보면, 도시 및 농촌 노인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경제적 문제를 가장 어려운 문제로 지적하는 사람들이 23.5%로 제일 많다고 합니다.

1980년 서울시 저소득계층 1,597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보아 저소득 계층 가구의 23.4%가 60세 이상 노인 세대 가구였다.

또한 1981년 전국의 60세 이상 노인 1천427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에 의하면 40.8%의 노인이 경제적 불안이 가장 큰 근심 걱정거리라고 했고, 61.8%의 노인이 생활을 하는 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청년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았거나 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 46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현재의 수입으로 생활이 힘들다는 노인이 전체 응답자의 52.8%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인들의

수입원으로는 직접 수입원으로 자신의 노동으로 남자 노인은 30%, 여자는 9.6%가 수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산업 사회에서는 퇴직(노령)연금이 노후의 가장 큰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과 자신의 재산 수입은 사적인 성격이 강하여 파악하기 힘들므로 전반적인 통계는 얻을 수 없으나 1981년의 개별조사에 의하면, 개인저축을 포함한 재산소득이 있는 노인은 전체 조사대상 노인의 9%가 되었고, 그것이 주된 수입원이 된다는 노인은 5.5%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수급권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의 공적 부조 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비가 있습니다.

2008년 1월 부터 실시한 저소득자들을 위한 기초 노령 연금제도도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그 외 수입원으로 자녀 및 친족의 부조로 노인들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간접수입으로는 지출 경감으로 혜택을 보는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가 있고, 경로 우대제에 의한 할인 등으로 혜택을 받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령기 생활비 지출현황으로는 생산적인 일을 하는 젊었을

때의 수입으로는 일상생활비, 자녀 교육비 및 교육비, 주택구입비, 자녀 결혼 등 독립 원조비등의 지출로 노후 생활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65세 이후가 되면 자녀 및 퇴직금 등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에서 2007년도 독거 어르신들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르신들은 병원, 의료비에 지출을 많이 하고 있으며, 수급권자들은 월세에 상당 부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현재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답하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제일 먼저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여전히 많은 사람은 나와 고령화 사이에 거리를 두려 하지만 '당신의 노후는 얼마나 안전하십니까'라는 광고 문구까지 외면하진 못할 것입니다.

최근 발표한 '제1차(2005년)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에 8602명의 50세 이상 중·고령자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로 노후를 준비하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기초 자료입니다.

자료에서는 "우리 사회가 저출산 및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

고 있지만 아직 개인들은 고령화라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여전히 가족들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기초 노령 연금 등의 공적연금이 있지만 개인들의 노후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 노령세대들이 생존하는 10~20년 동안은 여전히 노인 빈곤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에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현 노령세대의 뒤를 잇는 40대 장년층의 경우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나 가족의 도움에 앞서 각자의 노후를 위해 기본적으로 '공적연금+개인연금, 저축'의 방비책과 퇴직 후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자신의 자격 및 능력을 향상하고, 효율적인 가계 운영을 함으로서 자신의 아름다운 노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마음 자세와 행동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신재현 포천노인복지센터소장

한국청년회의소 중앙부회장 당선

포천출신 윤충식 전 포천청년회의소 회장



포천출신으로 포천청년회의소(C) 32대 회장(2006년)을 역임한 (사)한국청년회의소 윤충식 (38·사진)부총장이 9월28일 개최된 한국청년회의소 제117차 임시총회에서 전국 수석대표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 속에 중앙부회장으로 당선됐다.

윤충식 중앙부회장은 2009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국 15개 지부와 해외 1개지부들을 순회하며 각 지부의 애로사항 파악은 물론 지역에 맞는 사업모델 개발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이날 선출된 윤충식 중앙부회장은 "중앙에서 활동하여 좋은 사업은 포천시에도 유치하여 포천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에너지 절약과 환경의 중요성 인식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 세계 차 없는 날 행사

포천시와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는 9월22일 포천시 신음동 구절초길에서 세계 차 없는 날 행사를 개최해 에너지절약과 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이날 행사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진행됐으며 1부 기념식, 2부 국악공연, 가요,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기타연주 등 문화공연, 문화의 거리조성을 위한 부대행사로 길거리 카페,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수질분석기기 전시 및 사용방법안내, 친환경상품 및 재활용품 공모전 작품전시, 나눔장터 등이 개최됐다.

이상훈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장은 "이번 세계 차 없는 날 행사를 통해 구호로만 외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고 자전거, 도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장원 포천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가까이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고 친



포천시와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는 9월22일 포천시 신음동 구절초길에서 세계 차 없는 날 행사를 개최했다.

환경적 도시로 만들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침체된 신음동 거리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차 없는 날 행사는 1997년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1년 서울에서 행사가 개최되어 포천시는 올해부터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이 직접 실천하고 참여하는 환경운동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김미경 주부회기자단 부단장 hsd5333@hanmail.net

전국 해외 꽃배달서비스 전문점 성화플라워



주문이 이루어지면 전국, 세계 어느곳이든 신속 정확하게 꽃배달이 됩니다.

- ♣ 위치는 소흘읍 이동교리281-14부인터사거리에서 송우리쪽 130m 우측대로변 풍산그라비아옆
- ♣ http://www.sunghaflower.co.kr
- 무료전화 080-543-1889
- 무료팩스 080-543-1885

